

반도체 지금 ‘소리없는 전쟁중’... 클린룸 뚫리면 ‘치명상’

한번 가동 멈추면 정상화 상당시간
시간·비용 등 막대한 손실 불가피
클린룸, 타액 노출·외부공기 차단
“감염 위험 낮지만 만일 대비 준비”



SK하이닉스 클린룸

/SK하이닉스 뉴스룸

반도체 업계가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팹(반도체 생산 공장)을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정부 강제 사항이 아닌 데다, 이미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동을 이어가면서 방역을 할 대책을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하에 1~2일간 방역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LG전자 인천 연구동 등이 실제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문제는 반도체 업계다. 반도체 생산 라인인 팹이 문을 닫으면 다른 업종과 비교해 피해가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

니라, 패키징이나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도 해당된다.

당장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치열한 경쟁 중으로, 잠시라도 생산을 중단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공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이 이익을 고스란히 경쟁사에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된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량 중 2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경제에 끼칠 영향도 만만치 않다.

생산 중단 기간도 다른 업종보다 훨씬 길다. 반도체 설비는 나노미터 단위로 극미세 공정이라 예민도가 높아서, 한번 가동을 중지하면 정상화하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을 필요로 한다.

생산을 중단하기 전까지 라인에 올라 있던 웨이퍼와 고가의 화학물질도 전량 폐기해야 한다. 웨이퍼 생산 공정 특성상 아주 잠깐이라도 중단되면 다시 사용하기 어렵고, 화학물질도 고순도를

유지해야 재사용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클린룸’이 피해 핵심이다. 반도체 팹은 공정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미세먼지까지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든 클린룸으로 조성된다. 클린룸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방역조치를 시행한 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막대한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코로나19는 호시탐탐 반도체 사업장을 노리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이전사업장에 이어 청주사업장에도 밀접 접촉자가 발생해 곤혹을 치렀다. 발빠른 조치를 취한데다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만은 피했다. 삼성전자도 사업장이 3개나 있는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방침상 반도체 사업장은 만약 팹 근무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확인시 즉시 방역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단,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사업장을

무조건 폐쇄하지는 않아도 될 전망이다. 사업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 관할 하에 1~2일간 소독을 진행한다”며 “해당 노출 장소 등을 파악하여 동선 등에 따라 조치할뿐, 사업을 해라마라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도체 팹 특성상 감염 위험이 희박하다는 점도 초유의 사태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클린룸이 구획별로 나뉘어 있고, 출입 인원은 타액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역복을 입고 에어샤워 등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클린룸 설비상 외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도 있다. 아울러 업계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가동을 멈추지 않고도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최악의 경우에도 팹이 멈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감염자를 사업장에서 최대한 막는 게 급선무”라며 “만일을 대비해 모든 조치를 완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날고 싶어요” 항공사 ‘소리없는 아우성’

입국 금지에 국제선 초토화
대구노선 등 국내선 황폐화



지난 2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인천으로 향하는 전세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늘길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지난해 보이콧 재판으로 일본 노선이 대폭 축소되며 큰 타격을 입었던 항공업계가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가 중국 내 퍼지면서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대부분을 비운항 조치했다. 그런데 이번엔 국내에 확산세가 커지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 노선이 운항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국내 항공사들이 당분간 ‘코로나 리스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 금지 및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한 국가는 점차 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킨 나라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총 6개국이었다. 하지만 하루새 홍콩이 추가돼, 국내 항공사가 취항하지 못하는 지역은 7개로 늘었다. 이에 더해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등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시킨 나라는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11개국에 달한다.

앞서 지난 22일 대한항공은 이미 이스라엘 정부의 방침에 의해 사전 예고 없이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한국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한국인의 입국을 급히 금지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인천-텔아비브 노선은 오는 3월 28일까지 비운항 조치됐다. 또한 몽골 정부는 지난 24일 한국발 또는 한국행 항공편의 운항을 3월 2일까지 모두

중단한다며 우리 항공사에 운항 중단을 요청했다. 국적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이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에 취항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몽골 정부에게 운항 중단 요청을 받은 것이 맞다”며 “일단 3월 2일까지 중단이지만 몽골 정부 측에서 기간을 더 연장하게 되면 또 그만큼 항공기를 띄울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항공기가 멈춰선 것은 국제선뿐만이 아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항공사들은 대구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노선들을 운항 중단하기에 나섰다. 이미 대구국제공항에 취항했던 기존 29개 노선 중 대부분이 잠정 중단됐으며, 단 4개 노선만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선은 티웨이항공의 대구-제주만 남았으며 국제선은 ▲사천항공의 중국 대용 ▲중국 동방항공의 중국 상해-위해 등 외항사만 운항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티웨이항공은 대구-제주 노선을 비운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매일 하루 5회 운항에서 감편 운항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티웨이항

공은 대구발 전 국제선에 대해 비운항을 결정한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국내선 1개, 국제선 14개 등 대구국제공항에서 최다 노선을 운항했었다. 이에 따라 대구국제공항의 운영이 잠정 중단되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대구공항이 운영 중단되거나) 그럴 수는 없다. 항공편이 없다고 해도 공항은 운영을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적 항공사뿐 아니라 외항사들도 한국행 노선에 대해 잇따라 잠정 중단을 발표하고 나섰다. 에어뉴질랜드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3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오클랜드 직항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타이거에어 타이완도 오는 27일부터 3월까지 한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이밖에 필리핀항공·싱가포르항공·베트남항공 등이 한국행 노선의 잠정 중단을 밝혔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항공업계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제 회복 되기도 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며 “때문에 업계가 앞선 데 덮친 격처럼 더욱 더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이커머스업계 “생필품 안정공급 총력”

>> 1면 “이 난리 언제 끝날지”서 계속

특히 대구와 경상북도 일부 도시의 경우 지난 19일 오후 1시경부터 주문이 폭증하기 시작해 23일 기준으로 28일 금요일까지 지정 가능한 시간대 별 예약배송이 모두 마감됐다.

SSG닷컴 관계자는 “즉배송을 최대 20%까지 늘리고 있다. 직원들이 풀로 근무 중이지만 인력난이 심해 단기 인력을 섭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생필품 안정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일부 라면과 생수가 동나고 있지만, 수량을 한정시켜놓고 주문을 받기 때문에 매일 제품을 채우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켓컬리의 경우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후 배송이 10%가량 증가한 데 이어,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7일 이후 일주일 새 하루평균 배송건수가 평년

(3만~4만 건) 대비 30%가량 급증했다.

다만마켓컬리의 새벽배송은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익일 배송주문만을 받고 있으므로 매일 주문 현황이 달라진다. 회사 측은 신선식품은 빠른 배송이 중요해 더 많은 주문을 받기보다 배송 역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지난 20일부터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과 생필품 주문이 전국적으로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쿠팡은 주문량이 급증한 품목의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배송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신규 환자가 몰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고객들이 원활하게 생필품을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 19일 이후 이 지역 주문량이 평소보다 최대 4배 늘어 조기 품절과 극심한 배송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김민지·조효정 기자 kmj@

LG 등 대기업 잇따라 ‘재택근무’ 돌입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잇따라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선택사항이었던 클라우드 시스템도 근무 효율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떠올랐다.

LG는 코로나19 위기 경보에 따른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임산부는 필요한 기간 동안 재택 근무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 개학 연기 등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 요구도 수용한다.

재택기간 중 불이익도 없도록 조치했다. 정상근무로 인정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 감염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플렉시블 출퇴근제’를 통해 대중교통 혼잡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자들간 접촉도 분산했다. 사업장 사내식당 운영시간을 연장해 식사 시간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LG 테크 컨퍼런스도 취소했다. 미국에서 매년 수백명을 모아 진행하는 이 공개 석박사 유학생 채용설명 행사로, 앞으로는 국내의 행사를 그룹이 아닌 계열사에 따라 개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LG전자는 전사업장 외부 방문객 출입을 금지하고 임직원들 사업장 출장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재용 기자